



# 연극으로 본다 역사에 감춰진 인간의 피폐함

광주연극협회 '다시래기' 등 5개 작품 공연... 티켓 한장으로 연극 1편에 영화까지

2010평화연극제가 오는 23~31일(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최영화)가 주최하는 이번 연극제에서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4개 극단과 광주지역 배우들이 합동으로 꾸민 작품 '다시래기'가 공연된다.

올 축제의 주제는 'Memory-기억'. 한국전쟁 발발 60주년과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역사의 생체기에 인간 세계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연극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우수작품에는 평화연극상도 수여한다.

▲반쪽 날개로 날아온 새(24일·극단 파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여인들의 고통 많은 삶을 그린 작품이다. 해방과 함께 고향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그제 그만치 않은 순이, 금주, 봉기 세 여인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있다. 민족극 한마당에서 연기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김성수씨가 연출을 맡았다.

▲윤이상 나비 이미지(24일·극단 은세계)

'어느 작곡가의 기억'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이극 땅 독일에서 활동한 작곡가 윤이상의 삶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1967년 베를린, 사모곡 작곡에 여념이 없는 음악가의 작업실 한 남자가 찾아와 낯선 여행을 제안하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홍창수씨의 회곡으로 서울 백제스테이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다.

▲사이공의 흰 옷(26일·극단 Da)  
가난한 베트남 소녀가 학교 생활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고 변혁 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쟁중인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소녀의 의식 변화가 세밀하게 펼쳐진다. 오일영 작, 임세훈 연출로 서울 백제스테이 우수작품상 수상작이다.

▲달려라! 그루세(29일·극단 봉)  
유명 희곡 작가 브레히트 작품으로 연극배우로도 활동중인 류태호씨가 연출을 맡았다. 창원국제연극제 대상 수상 작품이다. 고아가 된 총독 아들을 대신 키워온 하녀 '그루세'와 아들을 되찾으려는 총독 부인이 재판관 앞에서 벌이는 신경전을 경쾌하게 담

# 기억 2010 광주평화연극제 Memory 23~3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극단 '은세계'의 '윤이상 나비 이미지'

아냈다.

▲다시래기(31일·광주연극협회)  
출상 전날 밤 다시래기꾼들에 의해 행해지는 즉흥 연회를 연극적으로 풀어낸 연극작품이다. 막이 오르면 관객들은 모두 조문객이 돼 죽은 영혼들을 예도 한다.

유명 희곡작가 허규씨 작품으로 김창일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다. 박규상·정은희·윤희철·박준명씨 등이 출연한다. 11월 열리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삿포로극장제에서도 공

연될 예정이다.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씨너스 전대점, 콜롬버스 상무점·하남점 11월14일까지 사용 가능) 티켓을 활용하면 연극제 참가작 한편과 영화 1편을 1만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또 현월증을 기증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현대 오일뱅크 보너스 카드 회원과 학사농장 영수증을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준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 1번지 양림동 흔적 찾기

22~31일 광주MBC 46돌 기념전

송일학교, 기록병원, 이장우 가족 등 광주 근대 1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양림동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22일~31일 광주 갤러리D '광주문화 1번지 양림동-그 흔적과 회상'전.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정태성) 창사 46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황영성·최영훈·오상조·우제길·이종국·김진화씨가 참여해 양림동 근대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황영성씨는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 광주 개화를 표현한 '양림동의 선교사'를 전시하고, 최영훈씨는 꽃밭으로 표현된 양림동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통해 희망을 나타낸 '봄날의 꿈'을 선보인다.

또 오상조씨는 선교사 묘지 근처의 꽃무릇 군락지를 카메라 앵글에 담았고, 우제길씨는 양림동에 축적된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본 '양림동을 아시나요A'를 전시한다. 문의 062-222-8011.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영훈 작 '봄날의 꿈'

## 화폭에 담긴 연꽃의 신비로움

20~26일 서양화가 양원철 개인전

물에서 피는 가장 신비롭고 고고한 자태의 연꽃이 화폭에 물들었다. 남도의 정겨운 풍광을 화폭에 담은 서양화가 양원철씨가 20~26일 광주 유스퀘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양씨는 긴 대롱을 치켜 올리며 꽃망울을 터뜨린 연꽃 연작을 선보인다.

해남, 강진,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눈에 담은 연꽃을 강렬한 푸른빛과 화려한 색감으로 화폭에 풀어냈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결을 따라 연잎이 춤을 추고, 다정하게 원앙이 헤엄치는 정적인 장면이 형상화됐다.

양씨는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4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영·호남 미술교류전, 2005 코리아 아트 페스티벌, 우리땅 독도사랑전 등에 참가했다. 광주시전 조



'사랑'

대작가 및 심사위원,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60-8432.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 김승일의 새 창작음악 발표회 21일 유·스퀘어문화관

지난 2008년 2월 학교(조선대 음악교육학과)를 떠난 김승일 명예교수는 '아웃리' 곡 만드는 작업에만 열중할 수 있는 알토란같은 시간들을 갖을 수 있어 행복했다.

같은 해 10월, 16년만에 갖는 작곡 발표회 '우리음악을 생각하며'를 통해 국악창작곡들을 선보였던 김교수가 2년간의 작업물을 모아 '제 6회 김승일의 새 창작음악 발표회'를 개최한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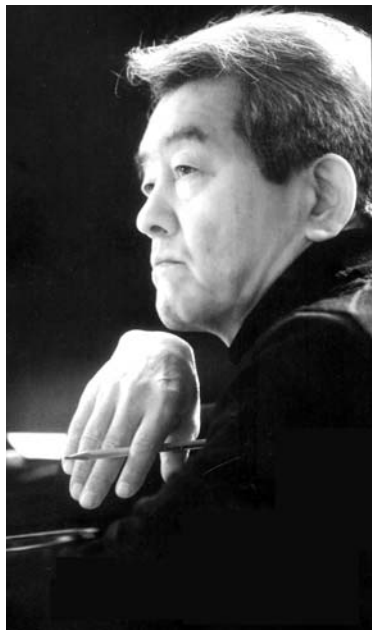
이번에 연주되는 신작은 기악곡들

이다. 클라리넷의 깊은 음색과 첼로 앙상블이 어우러진 '한', 작고 시인 기형도의 시 '이 겨울의 어두운 창문' 등을 모티브로 한 '두 바이올린을 노래하는 기형도시에 의한 전주곡',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파르티타', '피아노 모음곡' 등이다.

또 바이올린 연주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저 먼곳을 바라보는 회상', '비보이를 바라보는 어릿광대', '자음과 모음' 세곡으로 구성된 '무반주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3편의 모음곡' 등도 눈길을 끈다. 기발표곡

인 가곡 '비 오는 밤', '이별', '사랑과 평화' 등도 만날 수 있다.

김 교수의 곡들은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에 의해 '완성'된다. 아모르 첼로 앙상블(리더 김유정), 구희균(클라리넷), 이상복(피아노), 김희창·박경숙(성악), 천현주(피아노), 윤소희(첼로), 이수연·김재은(바이올린)씨 등이 참여했다. 현재 김교수는 작품활동과 함께 조선대·광주대 등에서 틈틈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직 반딧불이 포엠 콘서트'

22일 광주컨텐츠지원센터

'시(詩) 특화도서관'인 광주시립도서관(관장 정반표) 사직도서관이 사색의 계절 가을을 맞아 22일 오후 6시 30분 광주컨텐츠산업지원센터(옛 KBS광주총국)에서 '사직 반딧불이 포엠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는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강경호(52·사진)씨를 초청해 그의 삶과 문학이야기를 나눈다. 강 시인은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계

간 '시와사람' 발행인 겸 주간, 광주·전남현대문학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나르다예술단의 모듬사물놀이로 문을 여는 콘서트는 강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하고 시 노래 공연, 영상시·동화구연 등이 펼쳐진다.

서지일·정운천 시인이 우정출연해 자작시를 낭송하며 '홍지무' 무용공연과 명시 감상, 칠현금산조와 대금 퓨전음악 공연도 함께한다. 문의 062-613-777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미적만내**

그동안 함양웃닭을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아래의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음을 안내하오며, 2000년 8월 4일 개업이래 변함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정성으로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토종 참웃닭 | 웃 청동오리 | 웃 삼계탕 | 춘닭 백숙 | 삼계탕

함양 참웃닭 062-515-5757 북구 유동 9-3(삼성병원 뒷편)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